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소명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31~46절

-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 그 때에 임금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은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거니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든 것을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든 것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46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유를 알 때. . .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를 모르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주 피상적인 것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나 해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초하루 새벽기도회를 통해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1-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랴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 동산지기들과 함께 대만을 여행하면서 [국립 고궁 박물관]에 들렀을 때, 가이드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박물관에는 중국의 신비로운 동물 ‘비사’의 조각품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아주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해태’의 전신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청백 옥을 깎아 만든 '비슈'는 사자의 몸통, 봉황의 날개, 용의 얼굴, 기린의 꼬리를 달고 있어요. 옥황상제가 아끼던 '비슈'는 귀여움과 충애를 받는 탓에 아무 곳이나 배설을 하고 다녀서 옥황상제로부터 엉덩이를 맞고 향문이 없어졌대요.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죠? 향문이 없어서 만물을 삼키고 배출하지 않는 능력을 가지게 되니,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지 않을 때문에 재물을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처] [대만여행]대만고궁박물관 유명한 유물 | 작성자 박하사탕)

어릴 적 기억에 이사를 하면 꼭 성냥을 선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성냥에는 ‘불 같이 일어나라’는 의미에서 부자가 되라는 기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 성냥이 그냥 성냥이 아니라 “비사표 성냥”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제품의 성냥이 나오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인가 생각 없이 “유엔 성냥”도 선물하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선물해도 되는 성냥이 아니라, ‘비사표’ 성냥이라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박물관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이드가 작품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나라 시대의 작품을 볼 때는, 당나라 사람들의 삶의 높이에서 보도록 하라고,

진나라 시대의 작품을 볼 때는, 그 시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박물관에는 청나라 시대 [비취배추]라는 유명한 작품, 국보급 보물이 있는데,

정말 섬세하게 배추의 모양과 귀뚜라미 그리고 여치를 새겨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의 강도가 ‘7 도’나 되는 비취를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조각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교함이 단순한 칼이 아니라, ‘실’로 옥을 도려내며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작품의 위대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 시대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아야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배우는 것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자의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막상 수업에 들어가니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이 둘을 데리고 함께 시작한 유학생생활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니다.

영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쉬운 일을 아니었지만, 그 때를 생각하면 제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먼저 수업을 들었던 선배들을 찾아가 교수님들의 성향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자주 쓰는 용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들이 선호하는 단어는 어떤 것들인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퍼를 내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이 중요하고 강조하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생각을 언급하면 틀림없이 점수가 좋아진다는 것이었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마음가짐이란, 가르치는 사람의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아닐까요?

종종 유학에 실패한 사람들을 봅니다.

‘이것은 내 소신인데’라고 하면서 끝까지 지도교수와 싸우는 사람들이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신이라면, 그런 소신에 맞는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지, 왜 생각이 다른 교수님 아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학문적인 영역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학위’라는 것은 공부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학위를 받고 자신의 학문에 권위가 생기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자기 고집을 부리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입해볼까요?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 생활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지 않을까요?

을 한해는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선교적’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동안 ‘교회 중심적’교회와 ‘선교 중심적’교회의 구분을 꾸준히 설명해 왔

습니다. 교회 중심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라면,

‘선교 중심적 교회’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끊임없이 그 마음을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소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오른 편? 왜 왼 편? - 그 기준은?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이죠. **본문 31-33절.**

-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올 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듭니다. 성경에서 늘 그렇듯이 오른쪽은 ‘선’ 그리고 왼쪽은 ‘악’을 상징하죠. 또한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면, 염소는 하나님을 떠나간 백성들이죠.

왜 목자는 양을 오른 편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두어 구분할까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도 목자의 구별함 같이 모두를 구별하게 될 텐데, 오른 편에 서는 양과 같은 사람은 누구이며 왼쪽에 서게 되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오른쪽에 서는 사람들의 행위는 이와 같습니다. **본문 35-36절.**

-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 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든 것을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정작 오른편에 선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의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찬가지로 왼편에 선 자들도 그들의 행위로 인함입니다. **42-43절.**

- 4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혈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든었을 때라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들 또한 자신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자, 임금이 오른쪽에 있었던 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45절.

45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을 ‘양’에 비유하고, 나그네와 혈벗은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을 ‘염소에 비유 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늘 오른쪽은 긍정적 의미로, 왼쪽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니, 왜 양은 긍정적 의미로 염소는 부정적 의미로 언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구분지어 놓았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상식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나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기준에서 볼 때, 양 보다는 염소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베두인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섞어 키웁니다. 보통 양 세 마리당 염소 한 마리를 섞어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배경이 드러난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25장 2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

왜 염소를 양들 사이에 끼워놓았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염소가 아주 긍정적 역할을 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들은 뭉쳐서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염소들은 소위 개인플레이를 좋아해서 혼자서 엄청나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양들이 뭉쳐 다니는 이유가 ‘광야의 더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털이 많은 동물들이 모이면 더 더울 것 같은데, 광야의 더위는 습기가 많은 한국의 여름과는 다르죠.

이스라엘의 광야는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양들은 서로 다른 양의 몸으로 인해 생긴 그림자에 머리를 피하면 더위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양들이 모여 있기만 하고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서로 살을 맞

대고 있다고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몇 마리 끼워넣어서 양들을 뿔로 박아서 흠어지도록 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염소들이 양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양과 염소는 사이가 아주 좋아 아무런 문제없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뿔로 박아서 흠어지게 하는 역할은 '악한 것'이 아니라 양을 살리는 염소의 습성을 목자가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 중에 하나는, 염소를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제멋대로 하는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를 악한 것으로 비유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소는 양들보다 강하고 무서움을 덜 타기 때문에, 천둥과 번개가 치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양들이 염소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염소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무리의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 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오히려 염소는 양들의 '모범생'입니다. 양들이 본을 받도록 염소를 같이 키우는 것이죠.

염소는 목자의 앞에 다니면서 풀을 먹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가 풀을 먹는 습성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양들은 풀을 뜯어먹을 때 다 자란 것이든 어린 것이든 죄다 줄기까지 뜯어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 양만 키우게 되면 당장 내년에 먹을 풀이 모두 없어져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염소는 그런 양들과 달리 다 자란 풀의 잎사귀만 살살 뜯어 먹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소수의 염소를 섞어 키우면 다수의 양들은 염소가 먹는 방식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서 풀을 뜯어 먹는 염소를 보고 뒤따라온 양들은 그 방식대로 다 자란 풀의 잎사귀만 살살 뜯어 먹어서 척박한 환경에 풀을 내년에도 보존하여 다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범생의 역할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대광야는 험준한 낭떠러지가 만아서 풀을 찾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을 찾아 가야하는 때가 많습니다.

양들은 워낙 겁이 많아서 목자들이 가자고 해도 잘 따르지 않지만, 염소는 그런 길들을 겁 없이 찾아 나섭니다. 실제로 유대 광야에 보면 '띠'를 두른 것처럼 양들이 지나간 흔적들이 절벽을 끼고 남아 있는데, 염소가 먼저 지나간 자리를 양들이 따라간 길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두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양이 주인에게 순종을 잘하고, 염소는 불순종해서 뿔을 가지고 주인을

들이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염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과 마찬가지로 염소의 목에도 줄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양처럼 염소도 목자를 잘 따라갑니다.

그러면 왜? (영상 준비)

모든 면에서 염소는 양보다 뛰어나고, 리더십도 있고, 모범생인데 말입니다.

단 한 가지 차이 때문에, 주님은 염소를 ‘악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염소가 양보다 훨씬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범적이기는 한데, 다른 양들과 염소에 대한 배려심이 없습니다.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마지막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그 때, 목자는 꼭 양과 염소를 분리해 먹이를 줍니다. 같이 먹게 하면 염소가 먹이를 독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풀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병이 들거나 어린 양들이 먼저 먹도록 한다고 합니다. ‘악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염소는 다른 양이나 염소가 먹든 마시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먼저 불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주님은 ‘염소’를 ‘악하다’고 하십니다. 작은 자들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거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 준 것이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께 해드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리더십’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험벗고 배고픈 자 그리고 병든 자를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소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우리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 .

[래디컬]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2019년 신간 [복음이 울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네팔지역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마을들을 돌며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이는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예배를 위해 3주를 걸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들 공동체는 ‘미국식 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적 교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미국교회에서 성경에 없는 것들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플랫 목사에게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복음적인가”를 고민하게 만든 것이죠.

히말라야 트래킹을 하면서 돌아보았던 지역들은 애런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그와 함께 했습니다.

플랫 목사님은 결국 공항으로 가는 차안에서 애런에게 묻습니다.

“왜 이곳에 오시게 되었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말만 하기가 지긋지긋해서요.

제 자신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박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사역을 하기보다는 사역에 관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말라야의 민낯을 처음 마주한 뒤로 데이비드 플랫牧사는 **잡언 24장 11-12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리고 그 책은 히말라야 지역의 네팔 마을의 아픔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과 결단, 삶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어떤 거대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 소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 섹션에 강남 피부과 원장에서 지금은 한센병 의사로 살고 있는 박진모라는 젊은 의사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강남에서 피부과를 할 때는 모발을 전문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한센병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국 한센복지협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개인 병원을 하면서 주중, 주말 없이 무척 바빴어요. 한번은 수술 방 복도를 걸어가는데 휘청하는 거예요. 신경과를 찾아갔더니, ‘일 좀 줄이시죠’ 하더라고요. 개원 의사가 대부분 그럴겠지만, 아이랑도 많이 못 놀아줬어요. 하루는 애가 유치원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꼭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 그날 아이 일상을 적는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던군요. ‘우리 아빠가 정

말 바쁜 사람인데 오늘 와줘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한센환자를 돌보는 일은 그 때 마침 진주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볼 전문의를 찾는데, 갈 사람이 없어 보통 페이 닥터들이 받는 급여의 50~60% 수준의 월급을 받고 가게 되었답니다.

돈은 적지만 확실하게 주말이 보장 된다고 하니, 아이들과 건강을 생각해서 말이죠.

그러니 ‘소명의식’ 그런 것은 없이 가게 되었답니다.

사실 피부과 전문의가 될 때고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사가 되기보다 돈 많이 벌고 편한 피부과를 선택한 아들을 보고 말입니다.

어머니는 늘 그에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의 후임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갔을 때,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웬만하면 네가 해라!” 이제야 자신에게 실망했다던 어머니 앞에 “엄마 피부과 의사도 세상에 서 빛과 소금 같은 의사가 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에게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소명이란 그렇게 거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그런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감성편지 2015년 1월 16일자 “노숙인이 된 목사”

‘예레미야 스티팩’이란 목사는 예배가 있는 일요일 오전, 자신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한 교회 근처에 노숙자로 변신해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단 세 명에 불과했습니다. 스티팩 목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배가 고파 음식을 사려하니 잔돈 좀 달라’고 구걸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들어간 스티팩 목사.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았지만, 예배 위원들의 저지와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자리에 겨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다는 광고시간. 맨 뒷자리의 스티팩 목사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랐고 교인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과 염소’ 비유로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스티팩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교인들 중엔 흐느껴 우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티팩 목사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며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다. 하지만 예수제자는 부족하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